

동사2

*준동사

1. 이것이 핵심이다!-준동사는 동사에 준한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동사에서 그 꼴이 출발했으나 동사와는 다른 쓰임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지칭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동사는 3개 밖에 없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끝이죠. 이제 이 셋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2. 부정사-부정사는 아니 ‘불’+정해질 ‘정’+쓰임 ‘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녀석이라는 뜻이죠. 부정사는 크게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로 나눌 수 있는데, 원형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원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면 너무 지엽적일 수 있고 실제 수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만하도록 할게요. to부정사는 말 그대로 to에 동사원형이 붙은 꼴이죠. 실제 수능에서는 밑줄형 어법에서 오답 선지로 활용될 수 있고, 동사의 특성에 따라 특정 동사의 목적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번 쯤 들었을 법한 to부정사의 여러 용법들(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 실제 수능에는 그다지 필요없는 지식입니다. to부정사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동사들이 목적 보어로 to부정사를 사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수능에서 출제된 동사로는 cause, allow 정도가 있습니다!
3. 동명사-동명사는 동사원형에 ing가 붙은 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봤을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명사의 역할인 주어, 목적어, 목적 보어로 쓰일 수 있죠! 실제 수능에서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인다는 점 등이 출제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본 교재에서 확인해보기로 하죠!
4. 분사-분사는 ing꼴과 p.p꼴 크게 둘이 있습니다. 가끔 일부 문법책에서 동명사와 분사의 구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곤 합니다. 둘 다 겹보기는 동사+ing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사실들은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어법 출제 포인트를 모르기에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분사가 출제된다면 당연히 ing/p.p 구별 문제가 출제됩니다. 밑줄형 어법일 경우 ing나 p.p에 밑줄을 쳐 놓고 앞 뒤 정황을 통해 능동, 수동 여부를 가리도록 출제하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기출 문제에 출제된 다양한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렸으니 이를 보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시면 충분합니다!

*형식

1. 이것이 핵심이다!-영어에서는 형식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만 대체로 5형식이 맞다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5형식을 설명합니다. 저도 영어는 크게 5가지 형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형식에 대해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를 가르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를 놓고 말이죠. 제 생각에는 형식에 대해 대단한 문법적 지식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가져가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1, 2, 3, 4, 5형식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점검해 봅시다. 형식은 문장의 핵심 구성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각종 수식 어구는 빼고 생각하셔야 되요!

2. 1형식-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문법 용어로 그럴듯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boxed{1\text{형식}=S+V}$$

He stands on the hill. (주어 He와 동사 stands. 그 뒤는 수식 어구일 뿐!)

Time flies like an arrow. (주어 Time과 동사 flies. 그 뒤는 수식 어구일 뿐!)

이처럼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1형식입니다. 1형식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각종 수식 어구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1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를 완전자동사라고 유식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3. 2형식-2형식은 주어와 동사에 주격 보어가 더해집니다.

$$\boxed{2\text{형식}=S+V+C}$$

I'm a boy. (주어 I와 동사 am, 그리고 주격 보어 a boy.)

It looks beautiful. (주어 It과 동사 looks, 그리고 주격 보어 beautiful.)

2형식 문장은 '주격' 보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주어와 보어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도 보듯 'I=a boy'이죠. 또한 두 번째 예문에서는 'It=beautiful' 즉,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동사들 중에는 이처럼 반드시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사들로는 be동사, become 등과 함께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인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 look, smell, taste, feel, 등이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포인트는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사는 쓰일 수 없다는 거 명심!

3. 3형식-3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에 목적어가 더해집니다.

$$\boxed{3\text{형식}=S+V+O}$$

I made it. (주어 I와 동사 made, 그리고 목적어 it.)

You lost the point. (주어 You와 동사 lost, 그리고 목적어 the point.)

3형식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따라서 타동사가 쓰이겠죠. 간혹 초보자들 중에 2형식과 3형식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그랬었는데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주어와 보어 혹은 목적어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다. 주격 보어는 주어와 보어가 깊은 관련이 있었던 데 비해 목적어는 주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첫 예문에서도 'I=it'은 아니잖아요! 둘째 예문을 봐도 'you=the point'는 아니니까 이들은 목적어입니다. 3형식과 관련된 수능 어법 문제는 동사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로 쓰여야 하겠죠!

4. 4형식-4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두 개 사용합니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필요하죠.

$$\boxed{4\text{형식}=S+V+I.O+D.O}$$

They gave us some foods. (주어 they와 동사 gave, 간접목적어 us와 직접목적어 some foods.)

4형식 문장은 '~에게'를 나타내는 간접목적어와 '~을'에 해당하는 직접목적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위 예문에서도 '우리에게', '음식들'을 준거죠. 4형식 문장에서는 대체로 '~을 준다'는 의미를 담은 '수여동사'가 자주 사용됩니다.

5. 5형식-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어까지 더해진 문장입니다.

$$\boxed{5\text{형식}=S+V+O+O.C}$$

You made me happy. (주어 You와 동사 made, 목적어 me, 그리고 목적 보어 happy.)

The noise kept me awake. (주어 The noise와 동사 kept, 목적어 me, 그리고 목적 보어 awake.)

5형식 문장은 위 예문과 같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까지 필요로 합니다. 이 때 말 그대로 '목적'보어이기에 주격보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me=happy'이고, 'me=awake'한 상태인 거죠. 5형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유식한 말로 주술 관계를 띤다라고도 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한 상태이다' 이 정도의 의미이죠. 이 때도 역시 목적 보어로는 형용사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6. 정리-지금까지 문장의 5가지 형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수능에 필요한 정도로만 정리했구요, 이제 본 교재를 통해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에 몇 형식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연습해 주세요! 각 형식 별로 제가 정리해드린 출제 포인트도 놓치지 마시구요. 파이팅.